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발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OOC 한국 개최 관련 준비회의 / 3월 1일(수)
수행계획	(오전) 지속가능한 어업워크숍 - 파나마 정부 및 글로벌피싱와치 공동주체 (오후) 제10차 OOC 준비 회의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한 어업워크숍 참석 및 주요 국제 NGO 논의동향 파악 [주요 참석자]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 파나마 농림부, 미국 해안경비대, EU 유럽위원회, 한국 해양수산부, 가나 수산양식부 <input type="checkbox"/> 국제 NGO - Global Fishing Watch, Bloomberg Philanthropies, TMT 등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주제 1: 지속가능 어업과 정보·기술 - 주요 국가 정부기관은 어업, 해운 등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어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 - 파나마 농림부는 OOC 등 국제 논의 플랫폼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해양에서의 파나마 어업 및 해운을 위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 - 미 해안경비대는 IUU의 근절 및 예방이 미국 해양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며, 해안경비대의 데이터 기반 IUU 관리 및 수산자원 관리 사례를 소개 - 국제 NGO Global Fishing Watch는 IUU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기술로서 공간정보 기반 관리수단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로 남미 국가의 정보공유 정책을 소개 <input type="checkbox"/> 주제 2: 주요국의 IUU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실행계획 - 칠레, 한국, 파나마, 가나, EU, UK는 투명한 어업 및 IUU 예방을 위한 글로벌 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계획을 밝힘 - 참여국은 기술(전자로그북) 및 데이터(인공위성, 모니터링)를 활용한 지속가능 어업 이니셔티브를 적극 이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정보 및 경험 공유,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input type="checkbox"/> 주제 3: 어업 정보의 공개 및 공유 -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어업 정보(어선번호, 어업면허, 운항 데이터, 관련 기업 등)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 - 대다수의 국제 NGO는 어선 번호의 공개, 면허 제도에 따른 어업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타 운항 데이터, 실제 모기업 정보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 산업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지속가능어업 워크숍>



□ 제10차 OOC 준비 회의

[주요 참석자]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임지현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안나, 박종우 주무관, 정혜윤 전문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본부장, 이해영 전문연구원
- 인사이트모션 김지욱 대표

[주요내용]

- OOC 개최 중 양자회담 일정에 따른 계획 변경 사항 및 업무 분장
 - 카리브국가연합 사무총장, 미 국무부(기후특사), 미국 NOAA 청장,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사무총장, 팔라우 대통령, 도미니카 공화국 양자회담 일정(예정) 공유
 - 양자회담 일정 확정 및 조율을 위한 협의 중으로 회담 일정에 따라 정부대표단 업무 조율 필요
- * 양자회담의 경우 해수부 담당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여, 회담 진행 중 OOC 참석은 KMI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
- 제10차 OOC 한국개최를 위한 현장조사 관련 사항 논의
 - 각료급 인사의 참석 수준 및 유관기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OOC 개최 규모 확인
 - OOC 의제 및 의제별 패널 구성에 관한 정보 수집
 - OOC 운영을 위한 실무, 로지스틱스 관련 사항 파악
 - OOC 기 개최국(파나마, 그리스, 미국 등) 담당기관 및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 / 3월 2일(목)
수행계획	(오전) 제8차 OOC 개회식 참석, 해양보호구역세션 참석 (오후)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 세션 참석 (저녁) 제10차 OOC 준비 회의
수행결과	<p><input type="checkbox"/> 제8차 OOC 참석 (개회식, 해양보호구역 세션)</p> <p>[주요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고위급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외교장관, 미국 기후특사, 팔라우 대통령, 피지 수상 등 ○ 해양보호구역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환경해양어업 유럽위원회 - (국제기구 및 기업·단체) Sylvia Earl Alliance, the Smithsonian Tropical Research Institute, , Nature Solutions - Bezos Earth Fund, , Mission Blue, 해양보호연합(Inc.), CTI-CFF, Minderoo Foundation 등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고위급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naina Tewaney Mencomo 파나마 외교장관은 파나마가 해양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해양 위기(ocean crisis)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 및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함 - John F. Kerry 미국 기후특사는 기후 위기와 해양 위기는 하나의 동일(one and the same)한 문제임을 강조, OOC가 국가의 기후변화 행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음 - 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팔라우의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조하며, 2032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RE100)는 팔라우의 공약을 재확인 - Sitveni Rabuka 피지 수상은 자국이 해양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양 환경 협력 기금(ocean finance) 관련 양·다자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해양보호구역 세션 패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noldo André Tinoc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패널들은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존과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해양보호구역(MPA)의 적절한 설계와 이행에 대해서 논의 - MPA가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및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MPA의 성공 여부가 생태계 연결(ecological connectivity)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전략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평가 ○ 해양보호구역 공약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해양 건강성과 연안사회의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4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청색 기술(blue technology)을 위해 45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 - (미국) 산호초 보호를 위해 3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약속하고, 미국의 동부 연안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계획을 밝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프랑스) 자국 해역의 37%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음을 밝히며, 해양과학 분야 협력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과 심해저 채굴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코스타리카) 해양보호구역을 위해 천만달러의 청색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약속함
- (기타) 인니 및 에콰도르도 자국 내 신규 MPA 지정 공약을 밝힘

□ 제8차 OOC 참석 (해양오염 세션)

[주요 참석자]

- 정부기관
 - 페루 환경부, 대만 천연자원부
- 국제기구
 - 유럽투자은행, IMO
- 국제NGO 및 기업·단체
 - GlobalAction on Plastic, Oceana, Delterra, Litter Scientists, The Ocean Cleanup

[주요내용]

○ 해양오염 세션 패널토론

- 동 세션에서는 부적절한 해양쓰레기 배출이 해양환경 및 수질, 나아가 인류 건강과 생태계 다양성, 수산자원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효과적인 공공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
- Albina Ruiz 페루 환경부장관 등의 패널들은 첫 번째 하위주제로서 '플라스틱 관련 공공정책'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USAID의 Save Our Seas Initiative를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재 또는 금지하는 공공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함
- Arsenio Domínguez IMO 해양환경부장은 선박 보고체계, 어구 마킹 제도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IMO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IMO가 향후 해양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Wang Hong 중국 자연자원부 차관 등의 패널들은 두 번째 하위주제로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논의함
- Ricardo Mourinho Félix 유럽투자은행 부총장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4백만 달러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기타 국제 NGO에서는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사업, 해양 오염 관련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소개함

□ 제8차 OOC 참석 (기후변화 세션)

[주요 참석자]

- 정부기관
 - 독일 환경부,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자연자원부, 미주개발은행, 미 백악관 기후환경부
- 국제 NGO
 - The Nature Conservancy, International Alliance to Combat Ocean Acidification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주요내용]

○ 기후변화 패널토론

- 동 세션에서 Steffi Lemke 독일 환경부장관 및 Miguel Ceara Hatton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장관 등은 기후변화가 생태계 다양성 및 연안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Steffi Lemke 독일 환경부장관은 UN BBNJ 등 해양보호구역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플라스틱 등 대규모 해양 문제에 대한 국제 공동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일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4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 Miguel Ceara Hatton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자연자원부장은 도미니카 경제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가 도미니카의 생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기후변화 공약 발표

- (중국) 5개 해양공원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2025년까지 2만 헥타르, 400km의 연안을 보호할 예정임을 밝힘
- (노르웨이) 해운분야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박 탄소배출 제로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IMO-노르웨이 협력사업인 Green Voyage 2050을 통해 개도국의 선박 기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약속함
- (독일) 기후위기 대응관련 카리브 내 산호초 보호 사업을 소개함.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종 서식지인 산호초 보호 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연안 지역 재해예방 및 건강한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예정임을 밝힘
- (미국) 기후변화를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약속하고, 그린 해운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힘
- (일본) 금년 OOC에 전체 25개 공약(33억달러 규모)을 제출하였으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함
- (한국) △ 마셜제도 대상 해수온도차발전 역량강화('23~'26, 5.3 백만불), △ 피지·솔로몬 제도 대상 IMO 온실가스 전략 이행 지원('20~'24, 2.5백만불), △ 필리핀·베트남 대상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체계 구축('23~'27, 3.8백만불)사업 등을 소개하고, 해양에 기반한 기후변화 해결책 모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OOC 회의장 전경>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input type="checkbox"/> 제10차 OOC 준비 회의</p> <p>[주요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임지현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안나, 박종우 주무관, 정혜윤 전문관, 김용원 차관비서관 ○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김종우 사무관 ○ 주미한국대사관 이상길 참사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본부장, 이해영 전문연구원 ○ 인사이트모션 김지욱 대표, 이한솔 팀장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회담(미국무부, 그리스 정부) 주요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표단 대표 및 정부기관(해수부) 담당자 참석을 원칙으로 양자회담 진행 - (미국무부) 제10차 OOC는 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 1차~9차 OOC 공약과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 향후 10년간의 방향성과 이행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리스정부) 그리스는 신 정부 구성 이후 제9차 OOC 개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진전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할 것을 약속함 ○ 제10차 OOC 준비 방향 및 개최 전략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9차 OOC 공약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방향성과 이행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검토 - 해양쓰레기, 해양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해양 현안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10차 OOC는 6가지 전통 주제로 구성되는 세션 내에 세부 토론 주제를 2~3개로 구성해 각 분야별 구체적 실천 방안과 국가 공약 개발을 추진토록 구성 필요 - 또한, 제10차 QOS를 계기로 국내 해양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양디지털정보, 해양환경·생태, 해양과학기술, 해양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해양레저관광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업 연구기관, NGO 등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 기획 추진 필요. - 제 10차 90G 개최 시 6개 주제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 주도를 위해 오션5, Global Fishing Watch 등 국제 NGO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해 사전 국제 워크숍 추진 필요성도 검토 필요
업무③	회의 참석 및 LA 출발
수행계획	(오전) 지속가능한 어업세션 및 청색세션 참석 (오후) 파나마시티 출발 (18:56)
수행결과	<p><input type="checkbox"/> 제8차 OOC 참석 (지속가능어업 세션)</p> <p>[주요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골라 수산해양자원부,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FAO ○ 국제NGO 및 기업·단체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COIBA AIP, MSC, IATTC, Global Fishing Watch, 냉동참치생산자협회(Organization of Producers of Frozen Tuna), Fisheries Transparency Initiative 등

[주요내용]

○ 책임있는 어업/인증 패널토론

-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COIBA AIP, Marine Stewardship Council(MSC), Tri Marine Group과 같은 국제비정부기구가 참여하여 어업인증을 통한 조업 및 수산식품 유통 절차의 개선의 성과와 한계, 신규 기술이 어업인증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바에 관하여 논의
- Carmen Evelize Van-Dúnem do Sacramento Neto dos Santos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은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
- 국제NGO는 MSC 인증 제도, IMO 기준을 비롯한 국제 어업 관련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수산식품 유통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분자기반 어족자원 분석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

○ 혁신, 기술, 추적성 패널토론

-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과 국제단체, 산업계에서 참여하여, 조업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Anne Beath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식량 안보에 있어 수산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AF 난센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확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전자모니터링(e-monitoring)의 장점을 소개하고, 냉동참치생산자협회에서는 VMS, FMC, ERS, EM과 같은 모니터링 기술과 IMO, ILO, EU 등의 어업 기준을 소개함

○ 지속가능어업 공약 발표

- (가나) 식량, 기아, 빈곤, 고용 등에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나 선박의 IUU 예방을 위해 모든 상업어선에 대하여 EM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2.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음
- (페루) 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페루의 전통적 어업 지식과 문화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히며, 해양 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해저 채굴(deep-sea mining)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함
- (EU) IUU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어나갈 것으로 밝히며, 어업 분야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FAO 기준과 WTO 수산 보조금 기준의 국제적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함
- (Global Fishing Watch) 지속가능어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어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업 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위한 국가 정책 및 법제도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음
-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인증 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선박의 인증을 현행 19%에서 향후 30%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제8차 OOC 참석 (청색경제 세션)

[주요 참석자]

- 정부기관
 - UK 환경식량농업부
- 국제기구, NGO, 기업·단체
 - 세계은행, Ocean Conservancy, Bloomberg Philanthropies, Emeritus - Harvey Foundation, Blue Marine Foundation 등

[주요 내용]

○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패널토론

- 영국 환경식량농업부 장관과 관련 국제단체가 참여하여 청색경제의 확대·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Thérèse Coffey 영국 환경식량농업부 장관은 청색경제를 주요 현안으로 IUU 근절, 파리 기후변화 협정 및 BBNJ 협정의 이행준수,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전 등을 제시하였고, 영국은 취약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밝힘
- 세계은행의 Valerie Hickey 국장은 해양 계획과 해양정책 수립에 대한 투자가 해양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자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Ocean Conservancy는 해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Bloomberg Philanthropies Environment Team Lead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청색경제와 관광 패널토론

- 동 세션에서는 해양관광에 관련한 산업계 및 유관 단체가 참여하여 해양관광 산업의 잠재력과 잠재적 생태계 영향에 관하여 논의함
- Emeritus - Harvey Foundation과 Beta Diversidad, Iberostar Group과 같은 단체는 해양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함을 밝히며, 관련하여 멸종위기종 상어 모니터링 사례와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 사례, 관광자원으로서 산호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함

○ 청색경제 공약 발표

- (FAO)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국제 지침 마련을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함
- (벨기에) 전자 보고(digital reporting)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밝힘
- (호주) 원주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임 밝힘

□ 제8차 OOC 참석 (해양안보 세션)

[주요 참석자]

- 정부기관
 - 파나마 파나마운하청, 미국 해군성
- 국제기구 및 NGO
 - 국제해사기구(IMO), 세계해사대학(WMU),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주요 내용]

○ 기초발표

-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호 등에 있어 해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강조함.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안으로 선박의 탈탄소화 및 자동화, 해운분야 디지털화를 포함, 선원의 복지를 제시함.

○ 해양안보 패널토론

- Carlos Del Toro 미국 해군부 장관은 미국 정부 선박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과 선박 운항의 효율화를 위한 바이오파우링, 벙커링제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해운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와 민간의 협력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Ilya Espino de Marotta 파나마운하청 부청장은 파나마운하청의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호 정책을 소개함. 고래 보호를 위한 속도제한 기준과 분리항로 정책이 있으며, 탄소배출에 관련한 정보제공, 선박 등급화 제도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함.
- 해운분야 국제 NGO인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는 해운분야 탄소배출 제로화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탄소제로 선박을 건조 및 선박 운항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자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프리카 기후변화 연구 기관 The Africa Centre of Excellence in Coastal Resilience은 해운 분야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어선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어선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나 사례를 소개함.
- Cleopatra Doumbia-Henry IMO 세계해사대학(WMU) 총장은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해운의 주요 현안으로 해적, 밀수, IUU, 사이버공격, 국경 분쟁 등 해상 범죄를 제시하였으며, 해상범죄를 통해 형성된 암흑경제(black economy)를 와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OOC 회의장 전경>



[첨부] 제8차 OOC 전문(안)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을 수석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 합동 대표단은 파나마 정부 주최 제8차 Our Ocean Conference(‘23.3.2~3., 파나마시티)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공약을 발표함. 컨퍼런스 주요 논의 내용과 우리나라 공약 발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OOO 계기로 진행된 양자면담 및 부대행사 참석결과는 별전 보고 예정.)

※ 정부 대표단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임지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 조안나 주무관, 박종우 주무관, 정해운 전문관, 김용원 차관비서관,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김종우 사무관, 주미한국대사관 이상길 참사관(해양수산관),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이해영 전문연구원, 김지욱 인사트모션대표

I.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8차 Our Ocean Conference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3. 3. 2.(목) ~ 3.(금) / 파나마 파나마시티
- 주최 : 파나마 외교부
- 참석자 : 각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50개국 600여명

II. Our Ocean Conference 주요 논의 내용

1. **고위급 패널:** 글로벌 행동을 위한 효과적 대응(High-Level Opening Panel: Effective Response to Global Action)
 - 가. **Janaina Tewaney Mencomo** 파나마 외교장관은 올해 컨퍼런스 개최국으로서 파나마가 해양과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해양 위기(ocean crisis)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 및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함.
 - 나. **John F. Kerry** 미국 기후특사는 기후 위기와 해양 위기가 하나의 동일한(one and the same) 문제임을 강조하고,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동 컨퍼런스가 행동, 공약 발표, 해결책 모색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할 것을 기대함. 또한, 민간 영역이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협상 테이블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한국이 친환경적 해운 기술(green shipping technology)의 세계적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함.

다. 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미국과의 공동 개최 덕분에 제7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는 한편, 팔라우가 해양공간계획(Marital Spatial Planning)의 이행을 통해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2032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RE100)는 팔라우의 공약을 재확인함.

라. Sitveni Rabuka 피지 수상은 자국이 해양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양 환경 협력 기금(ocean finance) 관련 양·다자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기후변화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 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함.

2. 제1세션: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 (개요) Arnaldo André Tinoc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패널들은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전과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해양보호구역(MPA)의 적합한 지정과 이행에 대해서 논의함.

- MPA가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및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MPA의 성공여부가 생태계 연결(ecological connectivity)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전략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평가함. 특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은 자국과 프랑스가 공동개최하는 제3차 UN Ocean Conference("25.6)가 MPA 성공 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공약 발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MPA 관련 공약을 아래 요지로 발표함.

- (영국) 해양 건강성과 연안사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4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청색 기술(blue technology)을 위해 45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함.

- (미국) 산호초 보호를 위해 3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약속하고, 미국의 동부 연안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공약을 밝힘.

- (프랑스) 자국 해역의 37%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음을 밝히며, 해양과학 분야 협력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과 심해저 채굴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코스타리카) 해양보호구역을 위해 천만달러의 청색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약속함.

- (기타) 인니 및 에콰도르도 자국 내 신규 MPA 지정을 약속함.

3. 제2세션: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 (개요) 두 가지 하위주제로 나뉜 동 세션에서 패널들은 부적절한 해양쓰레기 배출이 해양환경 및 수질, 나아가 인류 건강과 생태계 다양성, 수산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공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
- Albina Ruiz 페루 환경부장관 등의 패널들은 첫 번째 하위주제로서 ‘플라스틱 관련 공공정책’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USAID의 Save Our Seas Initiative를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재 또는 금지하는 공공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함.
- 한편, Wang Hong 중국 자연자원부 차관 등의 패널들은 두 번째 하위주제로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논의함.

4. 제3세션: 기후변화(Climatic Change)

- (개요) 동 세션에서 Steffi Lemke 독일 환경부장관 및 Miguel Ceara Hatton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장관 등은 기후변화가 생태계 다양성 및 연안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Steffi Lemke 독일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4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 (공약 발표) 중국, 노르웨이, 미국, 일본 등은 아래 요지로 공약을 발표함.
 - (중국) 5개 해양공원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2025년까지 2만 헥타르, 400km의 해안선 보호계획을 밝힘. 2025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사용 모니터링 및 제한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연안지역 재해경보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노르웨이) 해운분야는 국가로 치면 8번째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라고 언급하며, 선박 탄소배출 제로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IMO-노르웨이 협력사업인 Green Voyage 2050을 통해 개도국의 선박 기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약속함.
 - (독일) 금년 OOC에 전체 12개 공약(3억 유로 규모)을 제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카리브 내 산호초 보호 사업을 소개함.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종 서식지인 산호초 보호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연안 지역 재해 예방 및 건강한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예정임을 밝힘.

- (미국) 기후변화를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약속하고, 녹색해운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힘.
- (일본) 금년 OOC에 전체 25개 공약(33억달러 규모)을 제출하였으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함. 2050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Green Climate Fund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금년 5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임.
- (한국) △ 마셜제도 대상 해수온도차발전 역량강화('23~'26, 5.3 백만불), △ 피지·솔로몬제도 대상 IMO 온실가스 전략 이행 지원('20~'24, 2.5백만불), △ 필리핀·베트남 대상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체계 구축('23~'27, 3.8백만불)사업 등을 소개하고, 해양에 기반한 기후변화 해결책 모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

5. 제4세션: 지속가능어업(Sustainable Fisheries)

※ ① 책임있는 어업과 ②혁신기술 및 이력추적 등 두 가지 하위주제로 구분하여 진행됨.

- (개요) 책임있는 어업 세션에서는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COIBA AIP, Marine Stewardship Council(MSC), Tri Marine Group과 같은 국제비정부기구가 참여하여 어업인증을 통한 조업 및 수산식품 유통 절차 개선의 성과와 한계, 신규 기술이 어업인증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바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혁신기술 및 이력 추적'세션에서는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과 국제단체, 산업계에서 참여하여, 조업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Carmen Evelize Van-Dúnem do Sacramento Neto dos Santos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장관은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비정부기구에서는 MSC 인증 제도, IMO 기준을 비롯한 국제 어업 관련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수산식품 유통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분자기반 어족자원 분석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
- Anne Beath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식량 안보에 있어 수산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AF 난센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확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전자 모니터링(e-monitoring)의 장점을 소개하고, Organization of Producers of Frozen Tuna에서는 VMS, FMC, ERS, EM과 같은 모니터링 기술과 IMO, ILO, EU 등의 어업 기준을 소개함.
- o (공약 발표) 가나, 페루, EU 등은 아래 요지로 공약을 발표함.
 - (가나) 식량, 기아, 빈곤, 고용 등에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나 선박의 IUU 예방을 위해 모든 상업어선에 대하여 EM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2.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음.
 - (페루) 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페루의 전통적 어업지식과 문화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히며, 해양 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해저 채굴(deep-sea mining)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함.
 - (EU) IUU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어나갈 것으로 밝히며, 어업 분야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FAO 기준과 WTO 수산 보조금 기준의 국제적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함.
 - (Global Fishing Watch) 지속가능어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어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업 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위한 국가 정책 및 법제도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음.
 -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인증 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선박의 인증을 현행 19%에서 향후 30%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6. 제5세션: 청색경제(Blue Economy)

- ※ ① 공평하고 지속가능 경제 ②청색경제와 관광, 두 가지 하위주제로 구분하여 진행됨.
- o (개요) ‘공평하고 지속가능 경제’에서는 영국 환경식량농업부 장관과 관련 국제단체가 참여하여 청색경제의 확대·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청색경제와 관광’에서는 해양관광 관련 산업계 및 유관 단체가 참여하여 해양관광 산업의 잠재력과 잠재적 생태계 영향에 관하여 논의함.
 - Thérèse Coffey 영국 환경식량농업부 장관은 청색경제를 주요 현안으로 IUU 근절,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및 BBNJ 협정의 이행준수,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전 등을 제시하였고, 영국은 취약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밝힘.
 - 세계은행의 Valerie Hickey 국장은 해양 계획과 해양정책 수립에 대한 투자가 해양경제의 핵

심임을 강조하며, 재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Ocean Conservancy는 해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Bloomberg Philanthropies Environment Team Lead는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Emeritus - Harvey Foundation과 Beta Diversidad, Iberostar Group과 같은 단체는 해양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함을 밝히며, 관련하여 멸종위기종 상어 모니터링 사례와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 사례, 관광자원으로서 산호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함.
- (공약 발표) FAO, 벨기에, 호주 등은 아래 요지로 공약을 발표함.
 - (FAO)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국제 지침 마련을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벨기에) 전자 보고(digital reporting)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에 기여 예정임.
 - (호주) 원주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여 계획을 밝힘.

7. 제5세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 (개요) 임기택 IM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파나마 정부와 해운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운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수단과 안보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음.
 -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호 등에 있어 해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강조함.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안으로 선박의 탈탄소화 및 자동화, 해운분야 디지털화를 포함, 선원의 복지를 제시함.
 - Carlos Del Toro 미국 해군부 장관은 미국 정부 선박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과 선박 운항의 효율화를 위한 바이오파우링, 병커링제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해운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와 민간의 협력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Ilya Espino de Marotta 파나마운하청 부청장은 파나마운하청의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호 정책을 소개함. 고래 보호를 위한 속도제한 기준과 분리항로 정책이 있으며, 탄소 배출에 관련한 정보제공, 선박 등급화 제도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함.
 - 해운분야 국제 NGO인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는 해운분야 탄소배출 제로화 이니셔

티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탄소제로 선박을 건조 및 선박 운항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자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프리카 기후변화 연구기관 The Africa Centre of Excellence in Coastal Resilience은 해운 분야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어선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어선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나 사례를 소개함.
- Cleopatra Doumbia-Henry IMO 세계해사대학(WMU) 총장은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해운의 주요 현안으로 해적, 밀수, IUU, 사이버공격, 국경 분쟁 등 해상 범죄를 제시하였으며, 해상범죄를 통해 형성된 암흑경제(black economy)를 와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III. 관찰 및 평가

- 제8차 OOC는 6개 주제에 대한 국가, 국제기구, 국제 NGO, 관련 재단, 기업 등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실질적 투자와 구체적 행동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끌어낸 회의임.
 - 제8차 OOC의 국가별·기관별 공약은 해양환경, 기후변화, 청색경제, 해양안보 등 각 분야의 해양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실천 공약을 발표하고, 실제적 투자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수의 정상과 각료급이 참석하는 콘퍼런스 참석자 규모를 고려하여 제10차 OOC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해야 할 것임.
 - 2024년 제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그리스 개최)에는 국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가 채널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스와 사전 교섭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제10차 OOC는 OOC의 10주년 되는 해로, 1~9차까지 OOC의 공약,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방향성과 이행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할 것임.
 - 또한, 해양쓰레기, 해양과학기술, 기후변화 등 세계적으로 다루어지는 해양 현안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10차 OOC는 세션별 세부 토론 주제를 2~3개로 구성해 국제협력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국가 공약 개발 추진
 - 제10차 OOC에서는 국내 해양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해양디지털정보, 해양환경·생태, 해양과학기술, 해양 기후변화, 해양레저관광, 스마트 수산양식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과 기업·연구기관·NGO 등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 기획 추진
- 제10차 OOC 개최 시 6개 주제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 주도를 위해 오션5, Global Fishing Watch 등 국제 NGO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한 사전 국제워크숍 추진 필요

IV. 행사 사진



〈제8차 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 사진〉



〈제8차 Our Ocean Conference 세션 토론〉



〈제8차 Our Ocean Conference 폐막 사진〉

※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다등급(파나마), 가등급(LA) 적용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여행자보험,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4) 차량렌트 :
- 5) 현지 회의 2회 개최

* 예산항목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및 제4차 UN Ocean Conference 개최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수탁)

6)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최지연	실비정산	(\$35X6일)-70 = \$140	(\$58X4일)+(107X2일) - \$39 = \$407	\$547	식비 2식 차감 (회의비 2회) 파나마 4일 렌트
이혜영	실비정산	(\$26X6일)-52 = \$104	(\$58X4일)+(107X2일) - \$39 = \$407	\$511	식비 2식 차감 (회의비 2회) 파나마 4일 렌트
합계				\$1,058	

* 숙박비 : 정부대표단 제공 호텔 숙박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시기 기입
 - * 최지연 - 일비: \$140=187,660원 / 식비: \$407=545,500원
 - * 이혜영 - 일비: \$104=139,400원 / 식비: \$407=545,500원
- 환율 : 1\$=1,340.45원 (출장시작 2.28 최초고시 환율)

현재환율

기준일 : 2023년 02월 28일 고시회차 : 1회차 고시시간 : 08시 24분 00초

인쇄항목편집

조회시각 : 2023년 03월 13일 14시 03분 03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u>미국 USD</u>	1,340.45	1.75	1,294.35	1.75	1,330.30	1,304.50	0.00	1,302.12	1,317.40	6.51517	1.0000

<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 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부연구위원	가	30	8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상한액: 176)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구분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